

민주, 대선 후보 6명 본격 레이스... '호남 표심' 촉각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
박용진·김두관 후보 컷오프 통과
최문순·양승조 후보 탈락
조작된 득표율 지라시 유포 논란
후보간 합종연횡 가능성 주목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대표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에서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7호순) 후보가 11일 컷오프를 통과했다. 예비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전에 오른 후보간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과거 민주당 경선의 큰 흐름을 바꿔 놓았던 '호남 표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전에서 일부 후보간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예비경선 문턱을 넘은 호남 출신 이낙연·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3편>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8명 중 6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로, 이들 중 강원지사인 최문순, 충남지사인 양승조 후보가 탈락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예비경선이 마무리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호남 후보 단일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비(非)이재명계 후보들의 합종연횡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본선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진행되는 결선에서는 단일화가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본격전에서 이 지사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항마'가 생긴다는 점에서 호남 단일화는 '본선 흥행 카드'로 꼽힌다. 호남 출신 당원이 다수인 민

주당내 사정을 감안하면 '호남 단일화'는 민주당 지지층의 관심이 쏠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본선 순위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후보들의 선택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위 후보의 독주가 흔들릴 경우 나머지 후보간 지지와 연대는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예비경선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전남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특정후보 지지성향을 표명하지 않았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선 후보 지

지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지역 정치인 중 당직을 맡거나 시도당을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본격전에서 그 색깔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화활동보다는 대선 경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이번 본격전에

서 호남의 목소리와 미래 발전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며, 이를 예산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예비경선 최종 투표율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컷오프 발표와 함께 일부 SNS상에는 진위를 알 수 없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최종 득표율' 지라시가 10여건 유포돼 일부 후보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 심상찮다...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받아야

광주 10일 주말에도 23명 확진
공공기관·학원·학교 감염 확산
선별진료소 밤 10시까지 운영

광주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 7월 들어 타지역 관련 감염자가 수도를 넘어다. 특히 검사건수가 감소하는 주말에도 일일 확진자수가 역대급을 기록하고, 공공기관과 학원, 학교, 요양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수도권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권고하는 등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휴가시즌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신규 발생자 7명을 포함해 이달 들어(7월 1~11일) 광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명이다. 이가

운데 타지역발 확진자는 28명(32%)으로 10명 중 3명꼴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서울 관련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명, 경기도 4명, 전북, 4명, 강원 2명, 대전 1명 등이다. 전체적인 감염 연령대는 20대 26명, 30대 18명 등 44명으로, 20~30대 젊은층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토요일인 지난 10일에는 평일보다 검사건수가 감소하는 주말임에도, 지난해 2월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단일시설 내 집단감염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하루 신규 확진자(23명)가 쏟아졌다.

시는 확진자와 검사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청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했다.

이처럼 최근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유입한 코로나19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복귀한 공공기관 직원이 확진돼 현장 평가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9명이 검사를 받았고 6명이 자가 격리됐다.

동구 한 학원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일시 폐쇄되고 학원생·직원·강사 등 129명에 대한 검사

가 진행됐다. 광산구 한 중학교 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07명이 전수검사를 받았다. 북구 요양원 2곳에선 종사자가 감염돼 종사자와 입소자 등 234명에 대한 검사와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이용섭 광주지사는 "지금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또 하나의 비상 상황"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되 선제적 자율 책임방역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민은 광주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수도권에선 전파력이 더 센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감염)가 점점 증가해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면서 "수도권에서는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에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마 잠시 주춤 폭염주의보

광주·전남 32도 안팎 무더위... 전남 동부엔 소나기

장마전선이 잠시 물러남 남부지방에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1일 구름과 담양에 폭염특보를, 흑산도와 홍도를 제외한 광주·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최근 비가 내려 습도가 높은 가운데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기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내륙은 오는 21일까지 낮 기온이 32도 내외로 덥고, 높은 기온에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무더위와 함께 비도 예보됐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의 영향이 아닌 북태평양 고기압의 불안한 대기상태로 인한 소나기로, 12일 오후께 전남동부 내륙지역에 5~40mm의 강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장마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남하했던 장마전선

이 일본 열도에 머물고 있으며, 장마전선은 대개 한반도를 지나 북상한 뒤 사라지는 만큼 추후 남부지방은 물론 한반도에 또 한번 비를 뿌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기상청 관계자는 "12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올 장마에 대한 예보를 이어가겠다"며 "폭염경보가 내려진 만큼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피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가달립니다
대한민국이달립니다

광주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달라지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초 노사쌍생의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급 완공,
인공지능 광주시대의 개막,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전국 최대 출생률 증가, 국내 최초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으로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시민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더 변화하는 광주의 내일을 기대해주시요!

광주광역시
GWANGJU CITY